

지역 소식 통

이학수 정읍시장, 주요
사업 현장 실효성 점검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실효성 점검과 개선 지시를 내렸다.

지난 4일 진행된 이번 현장 점검은 메이플플랫폼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정읍시립요양병원 식당 리모델링 등 3곳에서 이뤄졌다.

이 시장은 먼저 메이플플랫폼 조성 현장에서 주차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차면 수와 접근 동선 등을 직접 확인하며 "사업 완료 후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현장에서는 기존 외곽 수목을 건물 인접부로 이식해 조경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이 시장은 "도시재생은 단순한 공간 재정비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숨 쉬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범대위,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고창군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는 지난 7월24일 한빛원전 앞 쉼터대회에 이은 행동으로, 범대위는 이날 산업부를 향해 입법에 고조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부지내 저장시설 건설 시, 주민수용성과 동의권 보장 △'주변지역' 범위를 5km에서 30km로 확대 △중간저장 시설 및 처분시설 건설 지연에 대비한 보완절차 마련 등을 주장했다.

고창군은 원전이 소재해 있지 않으나 반경 5km 이내에 위치, 원전으로부터의 위험과 영향을 공유한다. 그러나 1990년대에 만들어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지원시설 등에 원전 보상체계에서 소외되어 왔다.

/고창=김영식 기자

RE100 국가산단, 정치권 설득 총력

권익현 부안군수,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 등 만나 정책적 지원 건의

권익현 부안군수가 서남권 해상풍력 연계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정치권 설득에 연일 발로 뛰며 정책 공감대 형성과 국정과제 반영에 힘을 쏟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권익현 군수는 지난 4일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을 잇따라 만나 해당 사업의 국정과제 세부사업 반영과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부안군이 구상 중인 RE100 국가산단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부안 앞바다의 서남권 해상풍력과 연계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지산지소(地產地消)형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권익현 군수는 특히 농생명용지 7공



구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접성, 우수한 교통 접근성, 국가산단 지정 요건 충족, 매립 완료에 따른 빠른 산업용지 전환 가능성 등 입지 우수성을 강조하며 새만금 RE100 산업단지를 실현할 최적지임을 설명했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은 새만금권 내에서도 산업 인프라의 균형발전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라며 "지역 간 불균

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RE100 국가산단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새정부의 국정과제 및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균형성장특위와 국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권익현 군수는 국정기획위원회 진성준 부위원장과 이준석 국토위 위원장(경제2분과 위원장)을 만나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부안군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국회,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RE100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과 입지 확장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축산농가 폭염 스트레스완화제 1만563포 긴급 지원

고창군, 폭염 장기화 대응... 축산농가 피해 줄이기 나서

고창군은 폭염 장기화에 대응하고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폭염스트레스완화제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올여름 폭염으로 고창지역 20농가에 5만2000수의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등 축산분야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군은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예비비를 포함 총 1억9000만원을 투입해 지역 내 가금, 양돈농가 169호에 스트레스완화제 1만563포를 공급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는 고온환경에서 가축의 체온상승을 억제하고 사료섭취 저하 및 생산성 감소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제품

이다. 음면사무소를 통해 축산농가에 배부중에 있다.

또한 고창군은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축산재해 종합대책 상황반'을 운영중이다.

축산과 직원 16명을 총동원해 주 3회 폭염에 취약한 축산농가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여름철 가축 사양관리 요령을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염경선 축산과장은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는 생산성 저하뿐 아니라 폐사로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지원이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들이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현장 중심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내장산리조트 투자자 간담회

정읍시가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활성화 위한 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민간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간담회는 5일 분양 참여자와 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페 아보르페에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내장산리조트 관광지의 발전 방향과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 전략, 시 차원의 행정적 지원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민간 투자자의 실질적 사업성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최근 문을 연 '카페 아보르페'가 주목을 받았다.

장희근 대표는 "평일에도 1000명, 주말엔 2000명 이상이 찾고 있다"며 투자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

간담회에서는 정읍드림랜드,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한국가요촌 달하, 내장산국립공원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 구성도 함께 논의됐다. 숙

박·상업·휴양·문화시설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방문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관광객 소비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향이다.

최준양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내장산리조트 관광지에 민간투자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투자자와의 정기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향후 홍보설명회와 입주 희망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도 병행해 관광지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희망의 불씨를, 햇불로 키울 것”

고창군, 군민활력지원금 지급결정... 1인 20만원 총 30만원

고창군이 '군민활력지원금'을 통해 민생회복 희망의 불씨를 꺼지지 않는 거대한 햇불로 키운다. 켜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과 소비쿠폰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전망이다.

5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 추석 전 군민활력지원금'으로 군민 1인당 2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추가 소비쿠폰까지 더해지면 1인 30만원씩을 받게 되면서 도시 전체의 활력도를 끌어 올리게 된다.

이번 군민활력지원금 지급은 어렵게 결정됐다.

앞서 고창군에선 올해 '터미널도시 재생혁신지구',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등 미래 100년 먹거리 사업에 집중하면서 재정여건상 전군민 지원은 쉽지 않았다.

대신 고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착한카рьер업소 지원, 소상공인 이차지원 등 꼭 필요한 곳과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신경 써 왔다.

하지만 정부지원으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지역 곳곳에서 눈물겨

운 사업과 선한 기부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지원에 불을 댕겼다. 또 유례없는 폭염·폭우로 각종 농작물 피해와 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질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었다.

고창군은 고창군의회와 함께 소통하며 군비를 투입한 민생지원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일부사업을 구조조정해 마련했다. 8월말 2차 추가경정예산이 고창군의회에 제출되고, 9월초 고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안건이 다뤄진다.

군민활력지원금의 지급은 추석 황금연휴를 앞둔 9월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민생회복의 작은 불씨가 꺼지기 전에 다시 한번 힘찬 바람을 불어넣어 거대한 햇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활력지원금은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 숨통을 틔워주고,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실질적 지원이 될 것"이라며 "빚없는 준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로 민생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핵심 현안 5건 국가예산 확보 건의

이학수 정읍시장, 김문덕 국토부 장관 만나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1일, 7월 31일자로 취임한 김문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교통망 확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 5건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장관 취임 후 첫 공식 방문 자리에서 이뤄져,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날 이 시장은 교통 기반 확충을 위해 △부전~칠보(국가지원지방도 40호선) 시설개량공사 △공평~북면 국도대체 우회도로(국도 22호선) 신설 △정읍 칠보~임실 덕치(국도 30호선) 개량 등 3개 도로사업을 건의했다.

부전~칠보 구간은 2023년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진행 중인 사업으로 국가예산 지원을 통해 2026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공평~북면 우회도로 신설과 칠보~덕치 개량 사업은 국가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도심광장 조성 사업과 신산업 육성과 국가 전략기술 강화 기초에 부합하는 첨단의료복합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3대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된 정읍이 국가 산업지도에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의 미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정읍시의 교통 인프라와 산업 기반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가 실현될 경우 정읍시는 물론 전북 서남권 전역에서 도로망 확충, 산업·관광 활성화, 물류 유통망 개선 등 다방면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